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종교



착각(마태 21, 33-43 (가))

자선 냄비 봉사자 모집 구세군 나성교회

구세군 나성교회(이주철 사관)가 올겨울 구세군 자선 냄비 운영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시간은 모금 기간인 주일을 제외한 11월 19일(화)부터 12월 24일(금)까지 하루 2시간이다.

이주철 사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더욱 늘었다"면서 "구세군은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올해도 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냄비를 설치,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때 보다 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하루 두 시간의 봉사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선 냄비는 구세군이 연말에 실시하는 가두 모금 운동이다. 1891년 샌프란시스코의 구세군 사관 조지프 맥피(Joseph McFee)에 의해 시작되었다.

▶ 문의: (213) 480-0714

바른 성경 찾기 목회자 세미나

11월 4일 나성청운교회

바른 성경을 찾기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11월 4일 (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성청운교회(담임목사 이명수, 4465 Melrose Ave., LA, CA 90029)에서 열린다.

주강사로 김영재 목사 나선다. 김영재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에게 주신 무오한 계시로서 구원과 의로운 생활 및 영생을 아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특히 성령에 감동된 여러 저자들이 쓴 책을 모은 것이나, 사실은 한 책이며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과 생활 및 증거에 대하여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든지 성경의 판단이 최종적이므로 인간은 이를 존중하고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목사는 성서교회 담임목사와 한일산기도원에서 강사로 사역했다. 현재 그레이스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 문의: (323) 708-3546

평잡하다고 나간 사냥꾼이 산속을 헤매다가 부스럭 하는 소리를 듣고 평인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비명소리였다. 이렇게 가끔 착각하여 사람 잡는 사냥꾼이 있다.

신앙인 중에도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과 이웃을 원수처럼 미워하면서도 미사참례는 꼬박꼬박 하고, 이마에 십자가를 연신 긁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러면서 "천국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천국엘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허튼 소리를 외쳐댄다. 이들이야말로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성직자나 수도자도 때로는 봉사하려 왔다는 것을 잊은 채 봉사 받으러 왔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것이다.

인간이 착각하는 것 중 근본적인 것은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을 잡고 울면서도 죽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착각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 외에도 물질은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착각과 권력이 영원하리라는 착각 속에 사는 이들이 있다.

포도원 주인은 상당히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혼자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소작인들에게 도지를 주었다. 추수때가 되면 도조를 받아오라고 일꾼들을 보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소작인들이 착각에 빠져 한푼도 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새로운 소작인들로 뽑힌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혀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있다. 우리는 공기도, 물과 태양도 다 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건강도 집도 재물도 가족도 다 받았다. 그

들로 쳐죽였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종들을 보냈다.

아마도 엄하게 경고하라고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이야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하며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마저 능지처참하였다. 당시 유대법으로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포도원은 소작인들에게 돌아간다고 돼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도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아버지는 부르르 떨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소작인들을 능지처참하였다. 착각의 결론은 비참한 죽음으로 돌아왔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 일부를 겨냥했다. 그들은 뽑힌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수없이 죽였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 그들의 말로는 편하였다.

이젠 도조를 잘내는 사람들에게 소작이 돌아갔다. 그들은 누구인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다. 그들이

뿐인가! 우리는 아름다운 산하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더러 마음대로 누리며 살라고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조를 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조로 원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시간을 원하신다. 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인 재물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착각 속에서 헤매다가 돌아선 사람은 바오로다. 그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착각에서 깨어났다.

신앙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선물이다. 은총이다.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린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착각하고 있거나 않은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넘쳐나는데 나만의 울타리를 굳게 치고 그 안에서 장구치고 복을 치며 나 홀로 이대로 마냥 기쁘게만 하소서! 라고 노래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최기산 신부-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

